

자연의 변색은 과학적, 인간의 변색은 정치적(?)

글 | 정용승 _ 박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Kaccar1@kornet.net

생물은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걸치레를 달리한다. 특히 어린 새들과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털을 자연적으로 얇거나 두껍고 진한 보호색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천부적인 본능일 것이다.

인간이 가장 큰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음은 매우 자연적이며 이지적일 뿐만 아니라 초현대적이다. 대기 환경적으로 검정 색, 즉 흑체는 태양에너지를 가장 쉽게 많이 흡수 저장하며, 흰색은 그 반대로 태양열을 최소로 흡수하고 반사한다. 태양열을 지붕 위 검정 판에 저장 후 태양열 보일러에서 물이 끓어 넘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흐뭇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2.4억 톤의 석유를 수입해 연소 시키고 있으며, 기후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CO₂ 등 온실기체와 독성 대기오염을 내뿜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연소는 세계 9위로 정말 대단하지만, 온실기체의 저감노력은 세계 54위(저면위치, 2007)라고 하니 더욱 놀랍다. 지난 18년 전부터 태양 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 과제를 신청해 보았지만, 정부는 깨끗한 태양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허구와 책임 없는 탁상공론만 하는 듯하다.

인간은 색깔에 민감하여 여름에는 흰 바탕의 옷을 선호하고, 겨울에는 검정 따위로 의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원유 1배럴 가격이 100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1973년 초에는 불과 2.7 달러였다. 그해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로 석유 값이 치솟자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관념에서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들은 검정색으로 유행을 바꿨다. 유행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색깔은 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서양인들은 조화된 은은한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에서는 색동저고리처럼 원색적인 진한 색을 좋아한다. 한편, 검정은 근엄하여 법조계에서 활용하고, 장례 시 상복으로 착용한다. 과학적으로, 붉은 색은 긴급하고 경중을 주며, 노랑은 조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초록은 순조롭고 무난함을 뜻하여 네거리의 신호등 색으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붉은 색으로 강조하며 순수와 승리를 추구한 반면, 어느 정당은 노란색, 파란색 등으로 정파의 이념과 특성을 표시한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보이는 색깔이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정치인들은 물론 방송인, 연예인들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의복과 그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붉은 색과 검정 색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셔츠와 넥타이 및 스카프는 물론, 가슴 위와 턱 밑에 보이게 하는 속옷이 검정 색, 붉은 색, 흰 색으로 그들의 생각과 이념을 표시하고 있다. 흰 옷, 또는 빨강이나 노랑 바탕의 옷에 검정 띠와 동정 등으로 장식하고 검은 큰 단추도 달아 돋보이게 한다. 장례 때를 제외하면, 10여년 전에는 검정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턱 밑에 검정 속옷을 내보이며 활보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 검정 옷에 흰 동정 등을 달고 다니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이는 그들의 정파와 이념 코드를 겉으로 표시하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여성 의류의 경우 유행이 2~3년이면 바뀌고, 8~10년이 지나면 그 유행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와는 다르다고 한다. 그들은 검정 옷과 빨간 색깔을 꾸준히 선호한다.

그런가 하면, 군사독재에 협력하고 연이은 독재 정권에 치부하던 자들이, 최근 선거가 끝난 후 앞에 나서며, 그들의 색깔을 전격적으로 바꾸고 있다. 검정과 빨간 색들이 하루 사이에 푸른 색 의복과 푸른 목도리 등으로 변신하고 있음이 자주 목격된다. 계절이 바뀐에 따라 철새들이 색을 바꾸듯이 정권이 바뀌면 정치인들도 당적을 바꾸고, 의상의 색깔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어 '정치 철새'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동물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천부적으로 당연한 변색을 하지만 인간은 권좌에 앉고 치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색하는 것인가? 어쨌든, 정치는 '조삼모사'로 한다니, 변색쯤이야 다반사인 듯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연보전과 에너지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색깔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더욱 생활과학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